

한국에서는 1950년대부터 해외에 있는 ‘동포’를 위안한다는 목적으로 영화를 포함한 많은 문화상품을 송출해 왔다. 처음에는 재외‘동포’들에게 한국의 문화상품을 보여주고 ‘상상의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 강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코리안 커뮤니티측이 주체적으로 텍스트를 선택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에스닉 비지니스를 지탱하는 상품중 하나가 되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본 발표는 특히 1950년대와 60년대의 재일조선인커뮤니티에 주목하여 한국에서 일본으로 건너온 문화상품들이 어떻게 변용되고 수용되었는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서 일본내 각 커뮤니티가 편찬한 신문과 잡지 등의 에스닉미디어를 주요 대상으로 하여 한국에서 일본으로 온 문화상품들의 수용과정과 그 수용과정에서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한편 1964년 도쿄올림픽과 1970년 오사카에서 열린 만국박람회에 한국측이 참가하는데 일본내에 있는 코리안디아스포라 커뮤니티중 하나인 거류민단은 여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예를 들면 1964년의 도쿄올림픽당시 일본에서는 거장 이치카와 콘이 올림픽기록영화를 만드는데 이 영화의 해외판에 한국판도 만들어지게 된다. 이때 한국측 참가단의 입장과 한국측 선수들의 활약을 재편집한 올림픽기록영화 한국어판은 재일조선인 류신노스케가 편집을 맡았다. 이처럼 한국정부가 보내온 영화를 일방적으로 수용해 온 거류민단은 1960년대가 되면 보다 더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문화상품을 수용하고 새롭게 창출해 내게 되는 것이다.

본 발표에서는 한국 ‘내부’에서 ‘외부’로 넘어 온 문화상품의 수용과 변용, 그리고 그 ‘외부’ 커뮤니티가 창출한 문화상품의 수용과 변용에 대해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도쿄올림픽 해외판

1965년 3월 24일 아사히신문판

이치카와 콘의 도쿄올림픽은 [실패]

주 불만은 충분히 영상에 담기지 않은 경기가 있다는 점과 도쿄의 모습도 올바르게

전해지지 않았다는 점 이었다

결국 올림픽영화의 해외판, 그리고 IOC 에 수납하는 작품은 새로운 필름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해서 이치카와 감독이 찍은 약 70 시간분의 남은 필름에서 편집하기로 했는데 구체적인 제작방법은 정해지지 않았다.

경향신문 1948 년 8 월 29 일자

포와 동포생활수록영화 무궁화동산

군정 예술과장이오 영화감독인 안철영 씨는 도미하여 미 영화계( )과 접촉하고 많은 수확을 거두고 귀국하였는 바 씨가 제작한 포와동포의 생활수록영화인 [무궁화동산]을 근일중 시공관에서 개봉하기로 되어 있는 바 총천연색 16 미리라고 한다.

조선중앙일보 1948 년 9 월 3 일

조선영화 조선서 상영못하다니

조선사람이 제작한 조선영화가 조선 땅;;상영을 금지당하였다. 즉 서울영화사 작품인 [무궁화동산]은 하와이에서 촬영한 것으로 국내 상영은 지난 31 일부터 3 일간 시내 국제극장에서 상영예정이었던 바 돌연 미국영화 배급기관으로 남조선가 극장을 독점하고 있는 중배의 반대로 상영금지를 보게 되었다고 한다(이하 중략)